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단리고 단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에는 경남중고교



발행·편집인: 정 행 권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O/T 411호
Tel: (051)245-7551 ~ 3 · FAX: 245-7550
인쇄처: (주)중앙인쇄
Tel: (051)636-9477 · FAX: 636-9478

3월초순 본부 42차 정기총회

결산이사회 2월 하순 개최 · 용마대상 후보 공적 심사
4월 하순 뉴시대회 스타트로 기별대항 등산 · 테니스 ·
바둑 · 골프 · 야구 일제히 열려... 홈커밍 준비 박차

본부동창회는 2004년 결산보고와 2005년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의제를 의결하기 위한 제42차 정기총회를 오는 3월 초순 개최할 예정이다.

정행권 본부회장(9회 · 협성운수 회장)은 앞서 오는 2월 하순 코모도호텔에서 결산이사회를 개최, 정기총회에 상정할 결산보고 · 예산안을 위시한 주요의제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

그리고 정기총회에서 수여하는 용마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후보 심사위원회와 용마장학회 결산이사회, 본부 임원단 회의 등을 2월

하순에 차례로 개최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최근 본부의 올해 운영방향 골자를 밝히고, 예년과 같이 용마가족의 화합과 결속을 촉진하는 각종 행사를 알차고 흥미롭게 추진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본부의 올해 주요 행사 계획안(별표 참조)에 따르면, 4월 하순 뉴시대회를 필두로 기별대항 등산 · 테니스 · 바둑 · 골프 · 야구 대회를 차례로 펼치고, 4월 말~5월 초순 모교방문행사(20~50주년 기념)를 치른다.

기별대항으로 펼쳐지는 행사는

5월 하순 용마등산대회, 6월 초순 테니스 · 바둑대회, 9월 하순 골프대회, 10월 초순 야구대회 등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 용마의 밤 축제는 오는 12월9일(금요일)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 회장은 앞서 신년사를 통해 "동창회의 '가치 있는 일들의 창출'을 위해 의지와 목표가 일치되게끔 노력하겠다"고 전제한 후 "이를 위해 동창사회의 신뢰 · 협력 기조 공고화, 역량결집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숙원사업(모교60년사 편찬 등)의 적극적 추진, 우정의 공감대 확산, 다양한 행사를 통한 일체감 조성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5년 본부동창회 행사 계획안

주요 행사명	일 정	장 소	주요 안건 · 참고 사항
경남중 제62회 졸업식	2월17일(목)	경남중 체육관	
경남고 제58회 졸업식	2월18일(금)	경남고 체육관	
본부동창회 결산이사회(1차)	2월 하순	코모도호텔	2004년 결산 · 2005년 예산안 심의
(재)용마장학회 이사회(1차)	2월 하순	대어초밥	2004년 결산 · 2005년 예산안 승인
용마대상 심사위원회 회의	2월 하순	대어초밥	2005년도 용마대상자 선정(정기총회에서 수여)
본부동창회 임원단 회의(1차)	2월 하순	대어초밥	본부동창회 업무보고 · 기타 토의사항
경남고 · 경남중 입학식	3월 초순	모교 체육관	
본부동창회 제42차 정기총회	3월 초순	코모도 호텔	2004년 결산 · 2005년 예산안 승인
본부동창회 임원단 회의(2차)	4월 중순	대어초밥	본부 운영방향 논의
기별대항 뉴시대회(동창회장기 정탈)	4월 하순	경남지역 (민물누리)	일정 · 장소 추후 통보
본부동창회 제2차 이사회	4월 하순	코모도호텔	본부 주요 업무 · 행사방향 논의
졸업 40주년 모교방문 행사	4월30일(토)	미정	제19회동기회 주관
졸업 30주년 모교방문 행사	4월30일(토)	미정	제29회동기회 주관
개교 제63주년 기념식	4월30일(토)	경남고 체육관	개교기념행사(모교에서)
졸업 20주년 모교방문 행사	5월 초순	경남고 국산기념관	제39회동기회 주관
마·창지역 · 울산지역 체육대회	5월 하순	미정	일정 · 장소 추후 통보
기별대항 등산대회(동창회장기 정탈)	5월 하순	승학산~구덕산	일정 · 장소 추후 통보
기별대항 테니스대회(동창회장기 정탈)	6월 초순	미정	일정 · 장소 추후 통보
기별대항 바둑대회(동창회장기 정탈)	6월 초순	중앙바둑센터(중앙동)	일정 · 장소 추후 통보
(재)용마장학회 이사회(2차)	7월 초순	미정	2005년 중간결산보고
본부동창회 임원단 회의(3차)	7월 중순	대어초밥	본부동창회 업무보고 · 기타 토의사항
기별야구 대표자 회의	9월 초순	미정	기별야구 예산안 심의 · 대대표 추천
기별대항 골프대회(동창회장기 정탈)	9월 하순	부산 근교 골프장	임원단회의에서 결정하여 추후 통보
기별대항 야구대회(동창회장기 정탈)	10월2일~10월29일	경남중 · 고 야구장	입장식 10월 2일 예정
본부동창회 임원단 회의(4차)	11월 초순	대어초밥	본부동창회 업무보고 · 기타 토의사항
본부동창회 제3차 이사회	11월 중순	코모도호텔	2005년 용마의 밤 행사 예산안 심의 등
(재)용마장학회 이사회(3차)	11월 하순	미정	2006년 예산안 심의
울산 · 마·창지역 용마의 밤	12월 초 · 중순	미정	일정 · 장소 추후 통보
본부 2005년 용마의 밤 행사	12월9일(금)	롯데호텔 3층	1부 · 2부 행사 계획안 추후 통보
총무단회의 (아유회 포함)	4·7·9·11월 예정	미정	연간 3~4회 상황파라 기획 예정

얼굴

양승태 (20회) 대법관 임명제정



양승태 동문(20회 · 특허법원장 · 사진)은 최근 대법관 후보로 대통령에게 임명제정됐다.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사시 12회에 합격한 양 동문은 법관생활 대부분을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해 후배 법관들로부터 '행정의 달인'으로 회자되고 있다.

1999년 서울지법 파산부 초대 수석부장 재임 시 IMF 외환문제 이후 급증한 도산기업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법정관리했다는 평과 함께 '파산 전문 판사'로 유명해졌다. '백두대간중주모임'을 만들 만큼 산 매니아인 양 동문은 서울지법 북부지원장이던 2001년 호주계 위험심판제정을 내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선정한 '여성권익디딤돌'로 뽑혔다.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 서울민사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 부산지법원장 · 법원행정처 차장 등 역임.

오거돈 (21회) 해양수산부 장관 발탁



오거돈 동문(21회 · 동기회장 · 사진)은 새해 벽두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입각, 국내외 용마가족들에게 영진 제1보를 전해줌으로써 동창회의 상서(祥瑞)로운 출발을 예고했다.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오 동문은 행정고시(14회)에 합격한 후 부산시청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부산시장 권한대행의 위치에까지 올랐다. 소탈하고 화통한 성격이어서 주위의 신망이 두둑고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온 오 동문으로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대통령 행정비서관 · 부산동구청장 · 부산시 정무 및 행정부시장 ·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25회) 청와대 민정수석 겸백



문재인 동문(25회 · 사진)은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비서관 재임 중 민정수석으로 겸백했다.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는 문 동문은 경희대 재학 중 시위경력 때문에 사법원수원(12기 · 사시 22회 합격) 수료시 판 · 검사에 임용되지 못해 바로 변호사로 활약,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문 동문은 사법제도 개혁 문제 · 검·경 간 수사권 조정 문제 · 지방자치경찰제 실시 문제 등 현안 해결에 지혜를 모아야 하고 반부패 업무 · 인사 검증 및 공직기간 감찰 등을 통괄하게 된다.

법무법인 '부산' 대표변호사 ·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 부산-경남 민변 대표 등 역임.



NEVER STOP EXPLORING™

노스 페이스 서면점 오픈

세계 최고의 산악인, 탐험가들의 생생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노스페이스-첨단 아웃도어 테크놀러지를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력을 자랑하는 노스페이스를 이제 「동보서적 맞은편 전문매장」에서 만나십시오.

10% 할인 VIP고객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서면점에만 있습니다)
노스페이스 서면점 (051)819-9090

이석조 (29회)

신년사

정 행 권

제9회·본부동창회 회장·협성운수(주) 회장



올유년 새해를 맞아 국내외 용마가족 여러분의 건승과 하시는 일들이 행통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경제사정이 너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환경마저 순조롭지 못해 우리는 마음과 몸이 무척 고달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기회와 직능회, 재경동창회를 비롯한 국내외지역동창회는 조직강화를 위해 눈부신 활약을 하였고 특히 미주지역의 활성화와 전남 동부지역동창회의 출범 등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마가족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희망이며 새로운 가치창출의 지평을 여는 스타트 라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의지와 목표를 하나로 일치시켜 출발하면 반드시 지난해의 고생을 극복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창출하리라 믿습니다.

본부동창회는 올해 가치 있는 일들의 성취를 위해 각 동기회·직능회·국내외 지역회 등의 조직강화와 기존 사업(각종 행사)의 활성화, 숙원사업(모교60년사 편찬 등)의 적극적 추진, 역량결집의 좌표 정립, 모교 장학사업의 확충 등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본부는 동창사회가 가치 있는 일들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단호한 의지와 확고한 목표가 일치되게끔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의지가 흔들리면 불안과 무력감,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 속에 함몰될 우려가 심화되고, 목표가 불분명하면 조직의 표류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이불’ 되는 동창회로

물론 우리 동창회는 전통적으로 단호한 의지와 확고한 목표의 일치감으로 발전과 도약을 지속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계승을 위해 수직적으로 선-후배 간 존경과 사랑, 수평적으로 동문상호 간 신뢰와 협력의 근본이 더욱 공고히 조성되도록 분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역량결집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역량결집은 ‘한마음 한뜻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동창회는 사랑과 신뢰를 생명으로 삼아 오고 있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이 들대로 든 용마가족이기에 미움을 사랑으로 녹이고 풀어지려는 마음을 결속시킵니다. 서로 닦고 흠잡으면, 갈등하고 시기하면, 독선과 아집을 부리면 모두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국어사전 속의 ‘받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공격’이란 뜻도 있지만 ‘용납·관용’이란 의미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공격’이 아니고 ‘관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동창회는, 용마가족은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고 허물을 감싸주는 ‘사랑의 이불’이요, 추위를 녹여주는 ‘화투불’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의 이불’ 속에서 서로를 보듬고, ‘화투불’ 주변에 땀땀이 모여져야 뜨거운 우정이 확산되고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본부는 용마가족들이 주인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마가족은 우리 동창회의 근본이고 구심점이며 자존심이고 희망입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성원’은 용마가족 여러분의 투철한 주인의식에서 분출되기 때문에 이의 가시화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쏟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을 누리십시오.

“△4용마의 밤 축제 특찬에 감사를 드립니다”

- △조대제(7회·본부 고문·협성개발 대표)=20만원
- △박동열(8회· / · 해운대성심병원장)=20만원
- △정행권(9회·본부 회장·협성운수 회장)=200만원
- △강진평(10회·본부 자문위원·부광산업 대표)=20만원
- △오강욱(10회· / · 남선곡산 대표)=20만원
- △안강태(11회·본부 수석부회장·대선조선 대표)=50만원
- △강수현(12회·본부부회장·DSG대동월페이퍼 대표)=50만원
- △남기용(12회· / · 문교산업 대표)=50만원
- △신준호(14회·재경 고문·대선소주 회장)=100만원·소주 30상자
- △재경동창회(회장 천신일-15회·세중 대표)=50만원
- △허태열(18회·본부부회장·국회의원)=30만원
- △남진현(19회·본부부회장·뉴태양관광호텔 회장)=50만원
- △이용흥(19회· / · 일신종합건축사 대표)=50만원
- △김형오(20회· / · 국회의원)=30만원
- △마창지역동창회(회장 김진환-20회·대아건설 대표)=20만원
- △울산지역동창회(회장 박홍조-22회·삼우교통 대표)=20만원
- △박재상(22회·본부 부회장·천일여객 대표)=50만원
- △박기욱(23회· / · 부산시의원)=50만원
- △박철병(23회·본부 감사·공인회계사)=30만원
- △김무성(24회·본부 부회장·국회의원)=30만원
- △부산시용마회(회장 정영석-24회·상수도사업본부장)=10만원
- △태창업(24회·본부 부회장·태흥사 대표)=50만원
- △서병수(25회·본부부회장·국회의원)=30만원
- △박상호(26회· / · 신태양건설 회장)=50만원
- △김태우(27회·본부 감사·변호사)=30만원
- △엄호성(28회·본부 부회장·국회의원)=30만원
- △최강호(28회· / · 진영수산 피자사업부 대표)=50만원
- △윤성덕(30회· / · 태광 대표)=50만원
- △박명진(33회· / · 고려종합건설 대표)=50만원
- △우종완(38회· / · 더 베이직 하우스 대표)=50만원
- △이상률(31회·롯데양평동팀장)=콜라 등 30상자
- △각 동기회=각 10만원
- △제34회동기회=은거울 3점

※ 추가로 입금되는 특찬금 협찬 동문은 다음 회보에 별도로 발표하겠습니다.



일육회 사랑방 이전 축하회

중앙동 부산빌딩 201호... 산악회원들 지신 밟기도

제16회동기회 사무실 이전 기념 축하회가 지난 1월14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중앙동2가 49-13 부산빌딩 201호(고풍갈비집 2층-전 사무실 뒤 건물) 현장에서 열렸다.

김정균 회장이 주재한 이날 축하회는 30여 명이 참석, 축하를 나누며 동기회 번영을 기원했고 이어 일행은 고풍갈비집으로 자리를 옮겨 단합회를 펼쳤다.

◀ 새로 단장된 사랑방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축하하는 동문들의 환한 모습 (위)과 단합회.

특히 같은 달 16일(일요일) 일육산악회 부부동반 18명은 아침부터 함박눈이 쏟아지는 바람에 산행을 연기, 새로 단장된 동기회 사무실에 모여 축하연을 벌였다. 회원들은 지신밟기를 하며 “동기회 발전! 건강산행! 만사형통!”을 외쳤다.

신년회 2월2일

제16회, 부산관광호텔서 한편 제16회 신년회는 오는 2월2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동광동 부산관광호텔 메인룸에서 김정균 회장 주재로 열린다. 부부동반 행사로 치러지는 올해 신년회는 참석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부인들에게 특별선물이, 추첨을 통한 행운상 등이 전달된다.

을유년 새해를 맞아 용마가족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 본부동창회 임직원 일동

고 문

- 權五賢(1회) 전 경성대학교 이사장
- 金根俊(1회) 경남빌라 대표
- 鄭銅植(1회) 재경동창회 명예회장
- 金泳三(3회) 전 대통령
- 柳永烈(3회) (주)왕도 대표
- 宋斗灝(3회) 전 국회의원
- 鄭相千(4회) 전 국회의원
- 禹明洙(5회) 노인생활과학연구소 이사장
- 朱範國(5회) 전 경기은행장
- 鄭昭永(6회) 유니온치과병원장
- 趙大濟(7회) 협성개발(주) 대표이사
- 朴同烈(8회) 해운대성심병원장

회 장

- 丁幸權(9회) 협성운수 회장

자문위원

- 朴宗根(9회) 동기회장
- 崔漢成(9회) 국제견직공업사 대표
- 韓東大(9회) 한동대신경정신과의원장
- 姜鎮平(10회) 부광산업(주) 대표이사
- 吳剛旭(10회) 남선곡산(주) 회장

수석부회장

- 安康泰(11회) 대선조선(주) 대표이사

부회장

- 吳完洙(11회) 대한제강(주) 회장
- 姜洙憲(12회) DSG대동월페이퍼(주) 대표이사
- 南基鎔(12회) 문교산업(주) 대표이사
- 李範耕(13회) 산정농원 대표

- 李相澤(13회) 효산의료재단 병원원 이사장
- 金榮大(14회) 인천항도선사회 도선사
- 金亨洙(14회) (주)대호물류산업 대표이사
- 明浩根(15회) 쌍용양회 대표이사 부회장
- 宋圭政(16회) (주)윈스텔 대표이사
- 徐廷勝(17회) 서정승산부인과의원장
- 金吉帝(18회) (주)MSC 대표이사
- 李成一(18회) 삼보산업 전무
- 南珍鉉(19회) 뉴태양관광호텔 회장
- 石武官(19회) 천연레포츠타운 대표
- 李龍欽(19회) (주)일신설계종합건축사무소 대표이사
- 具映男(20회) 동기회 회장
- 金振煥(20회) (주)대아건설 대표이사
- 崔民錫(21회) 유원산업(주) 회장

- 朴載祥(22회) (주)천일고속 대표이사
- 朴興祚(22회) 삼우교통(주) 대표이사
- 劉載眞(22회) 뉴유창물산(주) 회장
- 朴基旭(23회) 부산시의원·삼오정 대표
- 太昌業(24회) 태흥사 대표
- 金鎮喆(25회) (주)디에스아이 대표이사
- 朴相浩(26회) (주)신태양건설 회장
- 尹晶煥(27회) 서진섬유(주) 대표이사
- 李元哲(28회)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 崔康浩(28회) 진영수산(주) 피자사업부 대표이사
- 權斗進(29회) (주)해진건설 대표이사
- 金大旭(29회) (주)태화미린 대표이사
- 尹星德(30회) (주)태광 대표이사
- 崔巨勳(31회) 법무법인 가람 변호사
- 朴鍾奎(31회) 법무법인 청해 변호사

- 朴命珍(33회) (주)고려종합건설 대표이사
- 柳世浩(34회) 남양석유(주) 대표이사
- 張仁華(35회) (주)화인스틸 대표이사
- 丁允省(35회) (주)뉴부산택시 대표이사
- 禹鍾完(38회) (주)더 베이직하우스 대표이사

감 사

- 方奉祐(10회) 이원회계법인 대표
- 朴哲乘(23회) 성도회계법인 대표
- 金泰佑(27회)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사무국

- 사무국장 金炯碩(16회)
- 총무부장 金炳秀(22회)

“산신령님, 을유년 환해 건강산행 하게 보우해주세요!” 용마산악회, 금정산서 시산제

“금정산 산신령님! 서기(瑞氣) 넘치는 을유년 새해 우리 용마산악회 회원들을 불러주시어 안식을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교와 동창회가 더욱 발전하고 국내외 용마가족들이 번영을 누리게 기원하여 조출한 음식과 맑은 술을 올리오니 영원히 보우(保佑)하여 주시옵소서!”



본부 용마산악회는 지난 1월 9일 부산의 진산(鎭山) 금정산에서 을유년 시산제를 올리고 건강산행과 안녕을 빌었다. 정준수 회장(15회·부산대 교수)이 주재한 이날 시산제는 서민석 총무(30회·세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11시30분 쌍계봉 못미처 있는 헬기장에서 올린 시산제는 돼지머리·편육·떡·과일

등을 차려 놓은 쟈트 앞에 서예가 박종문 동문(10회)이 쓴 ‘乙酉年 始山祭 山神祭(을유년 시산제 산신제)’라는 제문을 걸고 강귀동 동문(13회)이 축문을 읽었으며, 한동대(9회) 제병민(13회) 명예회장 순으로 일제히 큰절을 올렸다(사진). 정준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0회 신임회장 김상국



제10회 동기회는 구랍 24일 오후 6시 부산 중구 중앙동 무역회관 뷔페홀에서 '04 정기총회를 열고 김상국 동문(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김종원 회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총회에는 40여 명이 참석,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임원을 개설했다. 이날 총회는 박주환 동문을 부회장으로, 윤윤혁 이선형 동문을 감사로, 서정철 동문을 총무로 각각 선임했고 부회장과 이사진 구성은 신임회장에게 위임했다.

“소망 이루는 경팔회로 만들자” | 재경회 신년회

재경 경팔회는 지난 1월24일 오후 1시 서울 청진동 흥진옥에서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규환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은 살림살이 규모와 화합·결속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행사 방향, 각 클럽별 운영계획 등을 통과시켰다. 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엔 우리 모두의 소망이 꼭 이뤄지고 건강과 평온이 늘 함께하며 몸과 마음이 파사로워져 그 훈기가 온누리에 퍼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배주원 신년대국 우승 차지 한편 바둑모임 팔선회(회장 이유향)는 지난 1월 8일 오후 1시

30분 한일기원에서 이 회장을 비롯, 전영배 신현주 배주원 강성태 이창근 동문(도착순)이 신년대국을 벌여 우승 배주원·준우승 강성태 동문이 차지했다.

재경16회 새 회장 민신웅

제16회 재경동기회는 구랍 16일 '04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열어 신임회장에 민신웅(전 KAL 수석기장·사진), 감사에 김태일·안인환, 총무에 손재봉, 재무에 서정식 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김휘부 회장이 주재한 총회는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설했다.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용마춘추

닭과 더불어 생명력을 키우며

닭의 해 을유년을 맞이했다. 어머니 배 안에서 영도다리를 건너 다니다가 태어났고, 새로 생긴 부산대교를 멀리서 그리면서 살아온 65년... 선친께서 농학(축산학)을 전공해 보라시기에 “예!”하고 그 길로 들어섰다. No other choice! 가마술산 ‘부산(釜山)’과 새마당의 큰 다리 ‘대교동(大橋洞)’ 그리고 (有精卵). 닭은 우리 선조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강통삼 제14회 도곡농원 대표



지난해 6월12일 린리산 정상에서 동기생(왼쪽부터) 김익명 강홍삼 허인규 조장일 김중수 김장석들이 성취감에 빠진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들어왔다. 닭은 하루종일 먹이를 찾아 다니면서 잠들기 전까지는 쉬지 않고 수정을 한다. 15마리 이상, 그래야 수정률 85% 이상의 유정란(有精卵)이 된다. 농아먹인다고 해서 방사(放飼)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수정된 알이 방사유정란이다. 수정됨으로써 생명이 살아 숨쉬는 알이 된다. 생명- 이보다 더 절실한 단어는 없다. 생명을 북돋우며, 농촌(충북 단양군 매포읍 도곡리 136-4)에 와서 살기 어언 5년 8개월, 아직도 자립이 되려면 갈 길이 멀다. 닭처럼 꾸준히, 원기 왕성하게 생명력을 키워가면서 살아가야겠다고 을유년 아침에 다짐한다. www.happye99.co.kr

수탉은 잠들기 전까지 수컷하고... 놓아 먹이며 수컷된 알은 생명 살아 숨쉬고...

시 산 제

금정산은 축복받은 ‘눈꽃세상’

함박눈의 군무(群舞)... 온 세상을 하얀색으로 물들이면서 내리는 눈은 그칠 줄을 모른다. 자연이 우리에게 ‘순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듯하다. 저마다 멋진 춤을 추면서 내리는 눈송이들은 나뭇가지마다에 눈꽃을 피우면서 더없는 절경을 만들어낸다. 이 세상의 더럽고 추한 것을 모두 덮어버리고아미는 엄청난 솜씨는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이 빚어내는 예술품이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1월16일 오전 8시30분, 뜻밖의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솜털같이 내리더니 어느새 함박눈으로 변한다. 그리고는 금방 쌓여버린다. 오늘은 우리 제18회 동문·가족들이 올해 첫 산행으로 금정산 산신님께 문안인사를 올리는 산신제가 거행되는 날. 이리다가는 산신제는커녕 등반 자체가 무산되지 않을까 걱정이야. 김기성 총무에게 전화를 거니 무조건 집합장소인 지하철 범어사역 입구에 오라고 한다. 겨우겨우 집합장소에 다다른 뒤 시계를 보니 40분이나 늦은 11시40분. 10여 명의 친구와 부인들이 눈을 맞고 서 있다. 성미 급한 이상영 회장을 비롯한 10여 명은 벌써 출발했다. 아니 이 눈속에 산행을 감행하다니... 2진들도 어쩔 수 없이 눈발 속의 행군에 나섰다. 상마마을에 다다르니 그곳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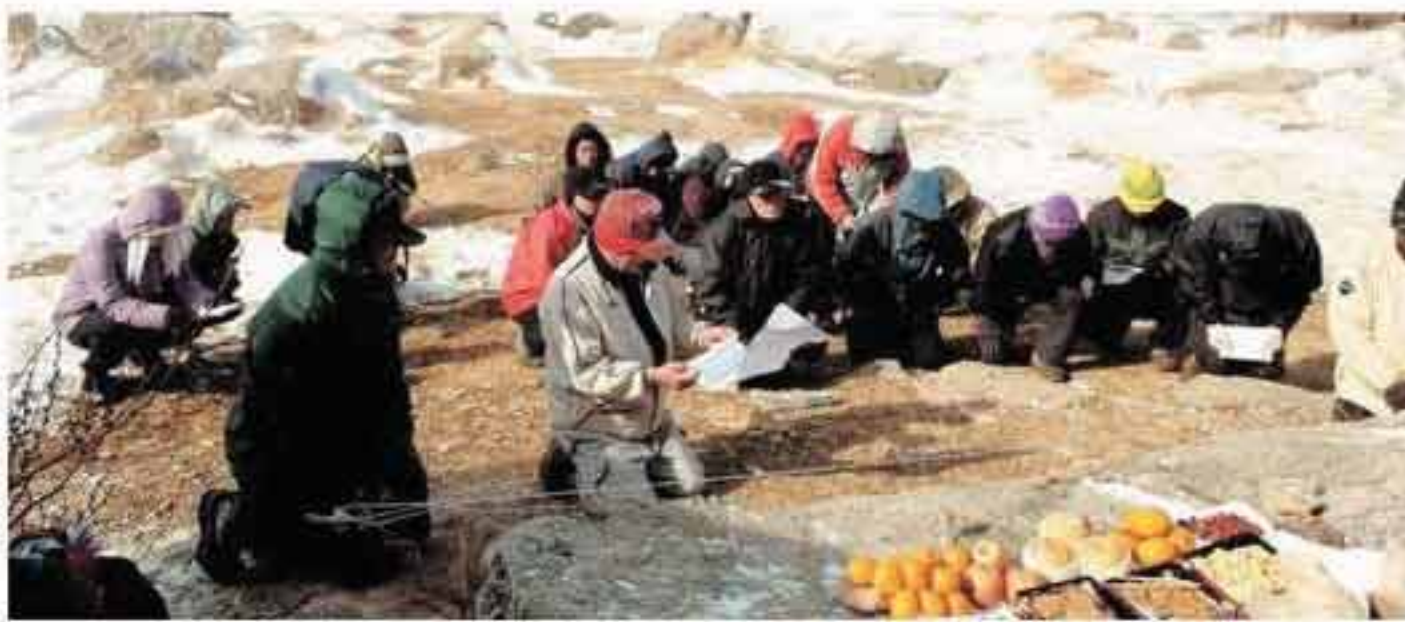
서 기다리고 있던 황광건군이 선발대가 시산제를 감행키로 하고 떠났다고 알려준다. “지독한 눈들이구나!”라고 중얼거리며 산행을 계속키로 한다. 눈은 그치기는 커녕 기세가 더욱 등등하다.

이런 상황 속에 몇몇은 어떻게 할까 망설인다. 그러나 장연식군이 “언제 우리들이 이런 눈을 맞으며 산행을 하겠느냐”며 재촉한다. 그 말에 일행들은 “죽어도 Go!” 하는 기분으로 출발을 감행하고 만다. 언



이재일 제18회 e-시사칼럼니스트

신 미끄러지고, 엉금엉금 기면서 능선에 오른 것은 오후 1시30분쯤. 그때서야 먼저 떠난 일행들과 합류한다. 능선에서 내다본 세상은 조물주가 완벽히 그려낸 한쪽의 그림이다. 설무(雪舞) 사이로 보이는 동래 쪽의 눈 덮인 마을과 회령동 쪽의 유유향 낙동강... 그저 보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지경이다. 절경에 넋을 잃는 것도 잠시, 산신제를 지낼 나비바위로 향한다. 2시쯤 당도하니 흥광회군이 돼지머리를 싸들고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다. 오후 2시10분, 마침내 산신제가 시작된



제18회 동문·가족들이 눈 쌓인 금정산 나비바위에서 시산제를 올리고 있다.

다. 하마터면 못할 뻔했던 의식이다. “을유년 1월16일 우리 부산의 진산이고 영혼의 안식처인 금정산 산신님께 감사의 뜻으로 조출한 음식을 마련하여 맑은 술을 올리나이다.” 제주 김중철 형님의 제문 읽는 역량이 우리들보다 세 살 많은 1942년생답게 그럴 듯하다.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 엄청난 눈이 쏟아졌던 눈발들과 살을 에는 듯한 칼바람이 산신제를 마치자마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자취를 감추었다. 그것은 분명 영험하신 산신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선물이었다. 예약식당인 두꺼비집에 도착하니 시간은 벌써 오후 3시10분. 그때서야 모두들 허기를 느낀다. 이곳에서 파전 등과 막걸리, 맥주를 시킨 뒤 산신제에 올렸던 돼지머리를 안주삼아 산 속에서의 ‘설중파티’를 벌인다. 눈 내린 산이 아무리 좋아도 마냥 머물 수는 없는 일. 이 회장이 “차도를 따라 걸어 내려가자”고 제의한다(16:10).

눈 쌓인 찾길 걷는 기분은 또 다른 맛을 느끼게 한다. “뿌드득, 뿌드득...” 하는 “발 아래에서 들리는 소리는 상쾌함의 극치. 멋진 풍경이 나타나면 즐거운 표정으로 사진들을 찍는다. 몸은 늙어도 마음만은 동심이다. 부산대 캠퍼스 뒤쪽까지 오니 벌써 어둑어둑해진다. 이로써 우리들은 무모(?)했던 ‘적설등반’을 무사히 마친 셈이다. 소요시간을 따져보니 무려 7시간은 넘는다. 모두들 독일 정통 생맥주로 이름난 ‘허심청 브로이’로 물러간다. 멋진 등산을 한 뒤 들이키는 생맥주 맛을 어디에 비길 것인가. 피로가 싹 가신다.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할 등산을 했다. 언제 또 이런 축복의 산행을 할 것인지 모르겠구나. 앞으로 죽을 때까지는 이렇게 멋진 등산을 할 수 없을 거야.” “다시 보자”며 헤어지면서 흔드는 손들은 한층 가볍고, 표정들도 뿌듯함으로 가득하다.

모교 안테나

24명에 장학금 본부 용마장학회서 수여

본부동창회 용마장학회는 2004학년도 장학생선발규정에 따라 경남고 재학생 24명 1~3학년(각 12명)에게 지난해 연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했다. 장학생 선발은 학업이 우수하고 교내외 생활이 모범적이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각 30만원씩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다음과 같다. △3학년=김재민 한인선 박준호 정한철 윤성원 손성호 조지훈 김민준 김만수 문경준 전규민 정태식. △2학년=김재희 손일호 김동환 임명규 변옥규 정성현 전승훈 김성범 김수용 손용민 김한뜻 안동진(이상 각 1~12만 순).

경남고 2년 이재훈 스키대회 대회전 우승

교고 스키의 ‘갯별인’ 경남고 이재훈군(2년)이 왕중왕에 등극했다. 이재훈군은 지난 1월10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제20회 부산시협회장배 스키대회 남자 고등부 대회전 종목에서 1·2차 합계 48초39의 기록으로 1위에 올랐다.

복음전도로 희망 심는 세 용마

"건지 못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69세의 목사와 복녀 땅에 '사랑의 왕진가방' 1만개를 전달한 68세의 장로,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예배'를 시무하는 57세의 목사- 세 용마가 국내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주환(9회·여주 주경교회 담임목사)·박세록(10회·중국 샘단동기독병원 대표)·이재철 동문(21회·홍성사 대표) 이 그 주인공.

사례비 받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의 '등불'



서주환 동문(9회)은 '잘 나가던' 건설공무원직을 내던지고 61세에 신학을 공부했고 65세에 목사안수를 받았다. 4평짜리 움막같은 농가 주택(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백석리)에 십자가를 세우고 마을에서 얻은 뒤주로 강 대상을 만든 후 지난 2003년 8월 '주경교회의 문을 열었다. 고려대 정외과를 졸업한 서 동문은 건설부(현 건설교통부 전신)에 들어갔고 노태우 정권 당시 추진했던 5개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건설본부장 등 이 방면에서만 34년간 헌신한 건설통.

'사례비 받지 않는 노목회자'로 불리고 있는 서 동문은 목사안수 후 고향인 경남 고성 병산리에 내려가 2년간 컨테이너박스에서 생활하면서 교회 설립을 기도하던 중 미국 뉴저지 베다니교회(장동찬 목사)의 10만 달러 성금으로 교회를 지어 지난 2003년 7월 25일 병산 베다니교회를 헌당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현재 서 동문은 신학을 공부하려는 탈북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기쁨의 집(무의탁 노인·중풍환자 등 10여 명과 버림받은 어린이 3명 수용)이 늘 '사랑의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데 헌신하고 있다.

복녀 땅에 '사랑의 왕진가방' 1만개 전달



박세록 동문(10회)은 구랍 6~11일 북한 신의주 노동자문화 회관에서 '사랑의 왕진가방 북한 보내기' 운동을 통해 마련한 1만여 개(6억 원어치)의 왕진가방을 북한 당국자에게 전달했다. 한국과 미국의 기독인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미국 샘(SAM) 의료복지재단 산하 중국 샘단동기독병원을 이끌고 있는 박 동문이 전한 왕진가방 속에는 각종 의약품을 비롯해 청진기 혈압계 체온계 등이 들어 있었고, 이것들은 북한의 4,000여 농촌진료소와 1,000여 공장진료소에 2개씩 보급됐다.

이번 '1만개 왕진가방' 포장은 북한 돕기 사상 최초로 북한이 지정한 특구가 아닌 일반지역인 신주에서 직접 이뤄져 공급됐다는 점이 특징. 이번에 박 동문의 주도로 이뤄진 왕진가방 1만개 북한 보내기는 1990년대 이후 만성적인 생선력 저하로 예방의학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 등 사회주의체제가 지향했던 의료체제가 붕괴된 북한에 복음이 아닐 수 없다.

한국 최초의 '극장예배' 설교자로 봉사



이재철 동문(21회)은 '예배도 영화만큼 즐겁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우리나라 최초로 '극장예배' 설교자로 나섰다. 한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목회자 중의 한 사람인 이 동문은 1월 27일 오후 9시 서울극장의 제2관(902석·11개 상영관 중 가장 큰 영화관)에서 첫 극장예배를 이끌었다.

이날 예배는 실력 있는 연주자들로 구성된 뉴트리팝소케스트라의 30분 동안 영혼음악 팝송 찬송가 등 공연에 이어 이 동문의 1시간 기량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 동문이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밤 9시마다 시무하는 '극장예배'는 1960년대 영화계를 주름잡던 인기배우였던 그의 누나 고은아씨(본명 이경희·합동영화(주) 서울극장 대표)와 와 영화제작·극장업계 대부 중 한 사람인 자형 광정환씨(합동영화(주) 서울극장 회장)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주기 위해 기획하고 의기투합(?) 결과이다.

각계 동문들 새해 '도약의 나래' 활짝 펼쳐

상기중 동문(5회) 구력20년 만에 첫 홀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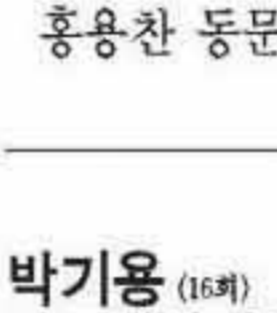
상기중 동문(5회·치과과사·사진)은 구랍 22일 부산CC 아웃코스 2번 홀에서 구력20년 만에 첫 홀인원을 기록했다.

이환군 동문(14회) 인천 송도에 디지털단지 박차



이환군 동문(14회·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사진)은 최근 송도 신도시 내 IT빌딩인 갯벌타워에서 국내·외 최고의 IT업체 6개로 구성된 그랜드 컨소시엄과 송도 4공구 4만 평에 10억 달러를 유치, 디지털 엔터네인먼트 클러스터(DEC)를 2006년 말까지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용찬 동문(16회) 딸 진영양 사법시험 수석합격



홍용찬 동문(16회·재경동창회

수석부회장)은 구랍 23일 제46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에서 셋째딸 진영양이 수석(2차 시험 평균 61.5 획득)을 차지, 경사를 맞았다.

서울대 법대 4년 재학 중인 진영양은 대원외국어고 입학과 졸업 시에도 각각 수석을 차지했던 재원이다. 우성해운 대표이사인 홍 동문은 "용마가족 여러분의 축하와 격려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웅 동문(26회) 부산빙상경기연맹 회장



이재웅 동문(26회·국회의원·사진)은 최근 열린 부산빙상경기연맹 대의원총회에서 임기 4년의 회장에 선임됐다.

연세대 행정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했고 이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93년 박사학위 획득). 지난 제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동래갑지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 금배지를 달았다. 민청학련사건으로 투옥된 바

있는 이 동문은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이 동문은 대학 교수(동의대 영상정보대학원장 등)와 방송인(MBC 등)으로 활약했고 박관용 전 국회의장 정책자문교수단 간사 등을 지냈다.

이인수 동문(33회)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이인수 동문(28회·사진)은 건설교통부 수송물류심의관 재임 중 최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 발탁됐다.

이창국 동문(1회)의 아들인 이 동문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24회)에 합격,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선원노동과장·해양정책과장·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을 역임했다. 깔끔하게 업무를 챙기고 부하들의 고충에 귀기울여 이를 풀어주는 데 성의를 다하는 등 안팎에 '따뜻한 선비'로 알려져 있다.

박기용 동문(16회) 바르게살기운동 대통령표창



박기용 동문(16회·바르게살기운동 부산진구협의회장·사진)은 지난해 11월 25일 서울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부산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박 동문은 지난 86년 8월부터 이 운동의 회원으로 활약,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봉사활동 등에 앞장서왔다. 특히 2001년부터 회장을 맡아 헌신한 공로로 부산시장상을 받았고 해마다 전북 임실군 내 초등학교를 회원들과 함께 방문, 각종 성품을 전달, '영-호남 화합의 길' 닦기에 기여했다.

성낙합 동문(21회) 서울 중구문화재단 설립



성낙합 동문(21회·서울 중구청장·사진)은 서울의 25개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문화재단을 설립, 초대 이사장에 취임함과 동시에 '충무아트홀'을 준공시킴으로써 지역 문화예술공공기관의 역할 제고가 기대되고 있다.

오는 3월 개관공연을 예정하고 있는 충무아트홀(지하 6층·지하 4층)은 연면적 1만 평의 다목적 공연장. 좌석 808석(1층 572석·2층 327석)의 대극장을 비롯해 원형무대의 소극장(327석), 갤러리(114평), 컨벤션센터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경상 동문(22회) 이마트 사령탑으로 발탁



이경상 동문(22회·사진)은 최근 단행된 신세계그룹 임원 인사에서 할인점 사장의 선두주자인 이마트의 대표이사로 영진했다.

연세대를 나온 이 동문은 지난 1975년 신세계그룹에 입사한 이래 '재무와 회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관리통으로 손꼽혀 왔고, 지난 2001년부터 경영지원실장으로 CFO(재무담당 최고책임자)를 맡았다. 이 동문의 이마트 사령탑 발탁은 할인점 시장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에 대비한 반전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배호원 동문(22회) 삼성증권 '법인서비스' 2위에



배호원 동문(22회·삼성증권 대표이사·사진)은 삼성증권이 아시아 지역 경제 월간지 아시아머니가 아시아 기관투자자들을 대상(894개 기관·총 1750명)으로 실시한 '2004브로커즈폴'에서 법인서비스부문과 한국리서치부문에서 각각 2위에 랭크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했다. 배 동문은 전년 경우 법인세 부문과 한국리서치부문에서 각각 3위이던 삼성증권을 이 같이 1단계씩 뛰어오르게 했으며, 삼성증권이 국내 증권사만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해외영업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게끔 독전을 폈다.

신동규 동문(23회) 유럽·남미경제외교 '창구'



신동규 동문(23회·수출입은행장·사진)은 최근 한국수출입은행이 유럽과 남미의 '경제외교창구'가 되게끔 사전사령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신 동문은 구랍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해운업체 CMA-OGM 자크사드 회장 등과 3억8000만 달러 상당의 융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신 동문은 앞서 수출입은행이 같은 해 11월 노 대통령의 남미 3국 순방 중 칠레 개발은행과 수출신용 공여 양해각서(MOU)를, 아르헨티나 국민은행과 단기 수출신용 공여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데 사령탑이 됐다.

승효상 동문(25회) Q채널 '...나의 길' 첫 초대자로



승효상 동문(25회·건축가·사진)은 논픽션 전문 Q채널이 특유의 고집과 철학으로 각계에서 '성공'을 거둔 이들을 조망하는 새 휴먼 다큐멘터리 '인포그래피, 나의 길' 프로(1월7일 밤 10시 첫 방영)에 첫 번째로 초대됐다. '웰컴시티' '수출당' '과주출판도시' 등으로 유명한 승 동문은 이날 밤 출연에서 "산자락에 뿔뿔이 들어앉아 있는 남루한 달동네는 나의 건축교과서다..." 등등 자신의 건축예술과 철학에 대해 꾸미지 않은 이야기들을 털어놓아 진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김형국 동문(22회) 한국국제정치학회 차기회장



김형국 동문(22회·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사진)은 최근 서울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열린 한국국제정치학회 총회에서 2006년도 회장으로 선출됐다.

제28회 신임회장 강현안



제28회동기회는 구랍 14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범일동 하모니웨딩홀 3층 소나타룸에서 104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열어 신임회장에 강현안 동문(번

호사·사진)을 선임했다. 강동수 회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에는 44명이 참석, 제1부 정기총회를 통해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강현안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반갑게 자주 만나는 동기회, 즐거움을 나누고 서로 돕는 동기회로 거듭나도록 하는 데 열성을 쏟겠다"며 "동기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동문들 발굴에 최선을 다해 활성화를 촉진시키겠다"고 말했다. 제2부 송년잔치는 실내악단의 경쾌한 밴드플레이와 노래·장기자랑 등으로 꾸며졌다. 동문들은 술잔을 높이 들어 "화합과 결속으로 자랑스런 제28회를 만들자"고 외쳤다.

자긍심 드높이며...

김성완(13회)
한양대 석좌교수 초빙



세계적 과학자 김성완 동문(13회·미국 유타대 약제학 및 생체공학과 석좌교수·사진)은 최근 한양대 공대 생명공학과 석좌교수로 초빙됐다.

미국 의학학림원과 공학학림원 회원인 김 동문은 혈액 응고 방지 고분자물질을 개발, 1983년 미국에서 첫 인공심장이식 수술이 성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김 동문은 이 같은 업적 등으로 미국의 노벨의학상이라고 불리는 '데일 위스터상'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호암의학상을 수상하기로 했다

'부산 소재 대우버스의 생산

최영재(13회)·박맹우(25회)
대우버스 울산 이전 합의



기지 울산 이전 계획안이 동문 사장과 동문시장 간 의기투합으로 가시화됐다.



최근 최영재 대우버스 사장(13회·사진 위)과 박맹우

울산시장(25회)은 울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이를 위한 투자 양해각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대우버스는 1371억 원을 들여 울주군 상주면 길천리 옛 진도공장 부지 일대 7만 4000여 평에 연산 1만 대의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을 내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노기태(20회) 국제신문 사장 취임



노기태 동문(20회·사진)은 최근 열린 국제신문사 이사회에서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됐다.

부산대 상대와 동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노 동문은 서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했고 금강공업(주) 대표이사 사장을 거쳐 지난해 제15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노 동문은 부산시 정부 부시장 시절 당정협의회를 활성화시켰고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부산 상공계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김무성(24회) 한나라당 사무총장



김무성 동문(24회·국회재경위원장·사진)은 지난 1월11일 단행된 한나라당 당직 개편에서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3선의원인 김 동문은 '조직관리의 달인'으로 당내 민주계의 핵심 멤버 중 일원이고, 보수와 진보 간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가운데 박근혜 당 대표의 신임이 두터운 최측근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한양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김 동문은 본부 부회장을 맡아 동창회의 크고 작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조직 활성화 촉진에 헌신하고 있다.

김 동문은 민족문제연구소 상임이사·제13대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재정국장·김영삼 후보 추대위 총괄국장·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내무부 차관·이회창 후보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황조근정훈장을 받았고 저서로는 <왜 김영삼이여만 하는가> 등이 있다.

모교에 '개방형 학교도서관' 국내 첫 도입

추월영 제3대 교장 별세

부산 교육계의 '큰별'인 추월영(秋月暎·99) 경남고 제3대 교장이 지난 1월24일 오후 3시 숙환으로 별세했다(빈소 서울삼성병원·발인 27일 오전 9시).

추 은사는 기석(11회·미국 거주)·준석 동문(20회·부산항만공사 사장)의 아버지이며 추경석 동문

(8회·전 건설교통부 장관)의 숙부이다. 추 은사는 1952~61년 경남고 교장 재직 시 전국 최초로 원형교사(덕형관)를 세웠고 이용객들이 자유롭게 책을 열람할 수 있는 완전 개방형 학교도서관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학교도서관 설립·운영에 새 지평을 열었다.

1903년 부산서 출생한 추 은사는 1925년 경성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교육계에 투신, 부산여고 교장을 비롯해 경남고 부산고 등 교장을 역임했으며 이들 학교들을 모두 부산 대표의 '명문고'로 육성시키는 등 1972년 정년퇴임 때까지 후학 양성과 부산지역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다.

이 공로로 홍조근정훈장(1960년)·국민훈장 목련장(67년)·국민훈장 동백장(71년) 등을 수상했다.

살·머·사·랑·하·며

원로의 말 한마디 아쉬운 세상

세상이 어떻게나 각박한지 요즘 사회는 원로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심지어 김수환 추기경까지도 보수반동의 늑은이로 몰아부치는 세상이다. 제 의견과 다르면 무조건 보수반동일 뿐, 시대의 선각자도 사회의 원로도 없는 한심한 세상이 되었다.

조선 세종 임금 때 황회는 정승이고 김종서는 판서였다. 김종서는 천성이 뻔뻔하여 그 태도가 거만하기 짝이 없었다. 의자에 앉을 때도 비스듬히 앉아 거드름을 피우곤 했다. 황회가 부하 직원을 불러 "김종서 대감이 앉은 의자의 한 쪽 다리가 짧은 모양



권정혁 제14회

이니 가져가서 고쳐 오너라." 그 한마디에 김종서는 사죄하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뒷날 그는 이렇게 술회했다. "내가 육진에서 여진과 싸울 때 화살이 빔발처럼 날아와도 두려운 줄 몰랐었네. 그때 황회 대감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나도 몰래 등에서 식은 땀이 줄줄 흘러내렸었네."

요즘 세상의 조무래기들은 조그만 권력을 쥐었다고 안하무

인이 돼 원로를 부정하고 그들의 절실한 충고조차도 보수반동의 불평으로 몰아부치니 그들의 그릇됨을 알고도 남겼다. 이러한 세상이 되었으니 원로가 어찌 원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원로의 말 한마디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데 그들의 한마디 충고조차 들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으니 어디서 세상의 허물을 고칠 수 있는 가르침을 만날 수 있으랴.

원로가 대우받는 세상이 그립고 원로의 가르침 한마디가 아쉽다. 아! 언제 그런 세상이 다시 오려나. 남을 높일 줄 아는 자 스스로 높여질 것이요, 남을 깔아뭉개는 자 스스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다.

아비를 '삼불출'로 만들다니...

세상에 삼불출(三不出)이 있다 더니 어찌다가 이런 일이...

나는 강원도에서 태어나 전쟁통에 부산에서 어렵게 성장하였다. 돌이켜보면 타향민 차별을 전혀 느껴보지도 못하게 무척이나 좋은 친구들을 만났었구나 하는 깨우침을 받았다.

만물은 고등학교 다닐 때 수능 모의시험에서 '48만명 중 1등'이라는 성적표를 가져와 사람을 놀라게 했다. 둘째는 TEPS에서, 셋째는 수능모의시험과 서울대 외국어 경시대회 그리고 대원외고 입학·졸업 각각 수석을 독차지 하더니, 막내 딸도 수학을 필피아드에서 전국 최고상을 받아오기에 애들 성적에 대해서는 약간



홍용찬 제16회 우성해운 대표이사

면역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셋째 진영이의 '사법시험 수석합격'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쇼크였다.

진영이는 대학에 들어간 후 줄곧 야학에 매달려 매일 밤 달동네 아이들과 씨름하다가 녹초가 되어서 귀가하는 걸 보고 '공부는 언제 하나'하고 염려했는데, 이렇게 되고보니 아비를 삼불출(三不出)로 만든 불효를 저질렀겠다!

둘째는 나라가 부강해지는 방

법을 연구하라고 경제학을 시켰으면서도 셋째에게는 흔히들 자기만의 출세 코스인 법학을 권유한 것은 나름대로의 연유가 있었다.

19세기까지가 주문생산이고 20세기가 시장생산의 시대라면 21세기에는 계약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혹시 법 논리가 경제를 지배할 수도 있고 과학 강국인 일본이 애써 공산품을 수출해서 벌어들이면 문과 출신들이 머니게임(money game)에서 미국에 저서 몽땅 까먹는 결과를 되풀이해 왔는데, 혹시나 까다로운 국제 경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아비의 희망인데...

글쎄 본인이 따라 줄 건지는 지켜봐야겠다.

전남동부지역동창회

- 白然均(11회)=삼정사 대표, 061-683-5433. (자택)여수시 오림동 411-7, 061-652-5966, 011-623-5966. e-mail: keyanghiike@chollian.net
金在坤(11회)=여수항 도선사회, 061-651-7007, 011-619-3098. (자택)전남 여수시 여서동 경남아파트 101동705호
白勝均(12회)=061-642-2489
朴正潤(12회)=영빈회관, 구례 화엄사 앞, 061-782-6116. (자택)061-782-2794
鄭哲基(13회)=(자택)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오성아파트 101동307호, 061-762-3235. e-mail: dockdove81@hanmail.net
白哲均(17회)=(자택)전남 여수

- 시 미평동 선경아파트 203동 1104호, 011-632-4966. e-mail: choroul00@hanmir.com
高文燦(19회)=(주)포철기연 대표,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56-4, 011-622-4104. e-mail: mcko@posm.co.kr
金秀喆(19회)=(주)하이테크 엔지니어링 기술고문, 061-683-7845. (자택)전남 여수시 문수동 흥화아파트 4동1205호, 061-662-4148, 018-350-4148. e-mail: sck702@empal.com
朴呈根(21회)=전남동부지역동창회 회장, (주)동부계전 대표, 061-691-7893, 전남 여수시 선원동 1281-2호, (자택)061-653-2344, 016-618-7042. e-mail: man6553@kornet.net
閔薰基(22회)=CLEAN TECH

- 어디서무엇을
대표, 061-686-2500, 011-565-8032. e-mail: hgmin22@hanmail.net
李忠熙(22회)=(주)동양제철화학 공장장, 061-798-6001, 011-620-7247. (자택)전남 순천시 조례동 왕지 대주파크빌 103동1203호, e-mail: chlee@dochem.co.kr
丁海天(22회)=(자택)02-3273-2964, 019-638-1403. e-mail: seasky2000@hotmail.net
金祥虎(23회)=우성산업 대표, 061-720-4139. (자택)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대림아파트 106동606호, 061-723-8661, 011-

- 9604-8665. e-mail: usung@paran.com
정동화(24회)=광양제철소 정비 부분 상무, 061-790-4023. e-mail: dhchung@posco.co.kr
禹相龍(25회)=LG건설 부사장, 019-680-3660
이상영(25회)=TOWER무역 여수 지사장, 061-642-2158, 019-642-8641. e-mail: saniyalee@hanmail.net
尹慶一(26회)=광양제철소 인사 팀장, 061-790-2122. (자택)전남 광양시 중동 성호아파트 204동 1612호, 054-221-6180, 017-622-9041. e-mail: yoonki@posco.co.kr
李燦弘(27회)=LG연구소 부사장, 061-680-1500, 019-660-1404. (자택)042-861-1027. e-mail: chleeb@lgchem.co.kr

- 尹亨根(29회)=011-9604-0627. e-mail: hkyoon@yncc.co.kr
朴在白(30회)=(주)동양 대표, 061-794-4181. (자택)전남 순천시 조례동 현대5차아파트 506동804호, 061-722-8435, 016-9887-3411. e-mail: dy4181@chollian.net
李聖湖(30회)=광양제철소 감사실, 061-790-4912. (자택)전남 여수시 금호동 매화연립 6동 104호, 061-799-7747. e-mail: gate2000@posco.co.kr
權泰友(32회)=HYSCO 정보기술 팀, 061-720-4340. (자택)전남 순천시 연향동 호반리첸시빌 205동1604호, 061-726-0865, 016-642-0864. e-mail: twkwon@hysco.com

합포만에 꽃핀 용마가족 '화합'

마창지역동창회 용마의 밤...신임회장 여환부(21회)

마산창원지역동창회는 구립 16일 경남 마산시내 사보이호텔 대연회장에서 부부동반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04정기총회 겸 용마의 밤을 열고 신임회장에 여환부 동문(21회·대주건설 대표이사)을 선출했다.

김진환 회장(20회)이 주재한 이날 1부 총회는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임원을 개선, 집행부를 새로 출범시켰다.

김 회장은 인사말에 앞서 유공 동문 표창에서 이치백 동문(22회)에게 용마대상을, 김만근(18회) 백종무(19회) 김영기 동문(23회)에게 각각 감사패를, 김영철(35회) 박인식 동문(39회)에게 공로패를, 배성호(29회) 이원보(35회) 이대용 동문(39회)에게 각각 우정상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3회·본부고문)이 축전을, 정행권 본부동창회 회장(9회·협성운수 회장) 서수홍 거제지역회장(16회) 김형오 한나라당 사무총장(20회) 공민배 대한지적공사 사장(27회) 등이 축하화환을 보내왔다.



안정모 동문(32회)의 재담 넘치는 사회로 시종 웃음꽃을 피운 2부 여흥은 6인조 난타공연(32회 이환용 동문 부인 리드)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동문·부인 열창경연과 행운상 추첨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행운대상은 최신철 동문(25회·김진환 회장 기증 대형 드럼세탁기)이 차지했다.

경남 마산 시내 사보이호텔 대연회실에서 열린 마산·창원지역동창회 주관 용마의 밤 축제에서 동문·가족들이 노래자랑을 벌이고 있다.

"조직 활성화"를

재경 경열회 새 회장 성은 8개 클럽회장 등 공로상

경열회 '04정기총회 겸 송년회가 구립 1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스포타임에서 부부동반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근태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회장에 성은, 수석부회장에 정인호, 총무담당 부회장에 조정만 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이 회장은 앞서 유공자표창에서 경열회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4개 지역회와 4개 취미클럽의 전·현임 회장 8명과 14년간 등산모임(사니조아)을 이끌어온 이계창 동문, 일년 중 최대 참석자인 박철민 동문에게 정성 넘치는 상품권을 전달했다.

송년회는 축하와 만찬, 행운상 추첨 등으로 진행됐다.

경열회 클럽별 지지개 시산제·수담·덕담 즐겨

경열회(제10회재경동기회) 각 친목회의 새해 1월 모임은 다음과 같다.

등산모임 사니조아(회장 이계창)는 16일 모락산에서 시산제를 올렸다. 분당 토요일은 15일 오후 5시30분 분당 기원집순두부에서, 안산화요회(회장 박철민)는 11일 오후 12시30분 안산 중앙역 다리목추어탕에서, 강북화요회(회장 강재현)는 4일 오후 12시30분 중앙극장 앞 평래옥에서 각각 단배주를 들며 덕담을 나눴다.

바둑모임 동수회(회장 김상태)는 22일 오전 11시 회장 사무실에서 새해 첫 수담을 즐겼고, 강남화요회(회장 김해룡)는 25일 오후 12시30분 서초 기원집순두부에서 축하를 나눴다.

재경14K 우정의 '인파'속으로

동문 95명·부인 51명 송년 국악잔치 즐겨

재경 14K동기회 부부동반 송년잔치가 구립 14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사상 최대 146명(동문 95명·부인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사진).

잔치를 주재한 김영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운 정은 버리고 고운 정만 아끼며 새해를 살아가자"고 말했다.

뷔페식 만찬 후 국악관련악단(지휘-조정민)이 춘향가 중 사랑가를 비롯해 경기민요, 태평소 등을 연주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신기석·박찬배 동문의 더블MC로 진행된 노래자랑은 고조된 열기 속에 화합의 한마당이 됐다.

김아자(황홍석) 봉금자(성이

경) 안영숙(김준우) 이미자 씨(정현호) 등 미녀들과 신준호 윤승홍 최낙섭 최태만 황원재 동문 등이 노래솜씨를 자랑했다.

이날 신준호 한수길 동문이 롯데햄 15세트와 롯데과자 15세트를, 배경숙 시인(조보근)이 책 20권을, 윤승홍 동문이 50만원 등을 협찬했다.



90여명 '한마음'으로

제15회 송년잔치 신바람

제15회동기회는 구립 7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범일동 크라운호텔 본관 대화홀에서 부부동반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 겸 송년회를 개최했다(사진).

박찬호 회장은 조일량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제1부 월례회를 주재하고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6명의 친구

가 유명을 달리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며 "지금도 몇 사람이 투병 중인데 쾌유를 위해 성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한해수 동기회관운영원장은 축사를 통해 "동기회관을 안락하게 꾸며 우리의 노후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터너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제2부 송년잔치는 김승일 동문의 사회로 진행됐다.

제100차 기념등정 일본 대마도서

삼삼산우회, 새해부터 매주 산행 실시



지난해 가을 한라산 등정에 나선 삼삼산우회 동문·가족들이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제33회동기회 삼삼산우회는 지난 2000년 6월 본부 용마산악회의 출범시기에 결성한 이래 오는 5월 제100차 산행을 맞이하게 됐고 이를 기념하여 가족동반 일본 대마도 원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범영 당시 동기회 회장이 앞장서 출범시킨 삼삼산우회는 현재 강주태 회장-정종훈 산행대장-김종만 총무의 이른

바 '삼각편대'의 추진력에 힘입어 날로 활성화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매주 산행을 실시하기로 한 삼삼산우회는 2003년까지는 월 1회, 2004년에는 월 2회 실시했다.

그간 지리산 천왕봉 1회·한라산 1회·서울 근교 수락산 1회·부산 중심 남부지방 수심회 기록을 쌓았다.

재경 21회 회장 박상기

'장수비결' 강론 인기 끌어

제21회재경동기회 '04정기총회 겸 송년회가 구립 9일 오후 7시 서울 압구정동 삼원가든에서 동문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박상기 회장(덕수빌딩 대표)을 유임시켰다. 박 회장은 이날 유

임으로 세 번째 연임의 영광(?)을 안았다.

박 회장이 주재한 총회는 결산안 승인, 임원개선, '07년 홈커밍 데이행사 아이디어 공모안 제시 등으로 진행됐다.

송년회 잔치 도중에 발표된 전경수 동문의 '장수비결' 강론은 인기를 모았다.

제23회 신임회장 박문희



제23회동기회는 구립 20일 오후 6시 30분 부산 중구 중앙동 대한통운뷔페에서 '04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개최, 신임회장에 박문희 동문(아인인태서널 대표이사·사진)을 선출했다.

최대일 회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에는 60여 명이 참석, 제1부

정기총회를 통해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임원을 개선했다.

제2부 송년잔치는 노래와 장기자랑, 행운상 추첨 등으로 열정의 한마당이 됐다.

재경14K 당구 왕중왕 조정현 부산은 이길미 우승 차지

재경 당구회는 구립 16일 J당구장에서 송년대회 겸 '04 왕중왕' 선발대회를 열었다. 선수·참관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대회 왕중왕전(월 우승·준우승자 참가)에서 챔피언은 조정현·준우승은 이상동 동문이, 월 우승은 오태홍·준우승은 황원재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한편 부산 당구회는 앞서 4일 중앙동 시티당구장에서 박병선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대회를 개최, 우승은 이길미·준우승은 박중철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관악산서 삼겹살 파티

재경 경팔산우회 남회산행

재경 경팔산우회(회장 김영철)는 구립 31일 관악산에서 갑신년 남회산행(17명 참석)을 하고 삼겹살파티로 지난 1년간 무사산행을 자축했다.

산우회는 앞서 같은 달 24일 수락산(11명)에, 18일 도봉산에 올랐고(9명-정상현 동문의 철순 기념 점심잔치로 감자탕파티 결집), 11일 북한산(11명), 4일 장대비를 맞으며 관악산을 등정(6명)하는 등 갑신년 연말을 마무리 했다.

3월8일 '3·8 반찬회 날' 경부합동행사 치르기로

14K 부산 38회는 3월 오후 6시 서면 대우빌딩에서(11명 참석)송년회 개최, 오는 3월 8일을 '38반찬회의 날'로

정하고 경부합동행사 치르기로 합의.

낙석회는 같은 달 12일 백홍수 프로 8단을 비롯한 100여명이 모여 송년대국을 벌였다. 우승 박철수·준우승 김성태·3위 김성부 동문 차지.

독서실 수준으로 꾸며

제15회 동기회관 업그레이드 개관 10년째를 맞은 제15회 동기회관이 실내장식과 개별 냉난방시설에 이어 독서실 수준으로 변모,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지난해 11월25일 오후 6시 동기회관에서 열린 '04년운영위원회에서 한해수 운영위원장은 연내에 실내 분위기를 단정하고 개별 냉난방시설과 함께 동문들의 정서 함양과 교양 축적을 위해 각종 도서를 구비해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위원장이 먼저 신간도

서 전권을 기증했고, 운영위원들을 비롯한 참석 동문들은 분위기 쇄신을 위한 예산 300여만 원의 조성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회의가 끝난 오후 7시부터 새진주식당에서 만찬에 있었고 한 위원장의 배려로 단합대회가 이어졌다.

일육산악회, 승학산 송년산행

일육산악회 갑신년 남회산행이 구립 19일 승학산에서 송승방 회장 부부를 비롯, 25명(부인 9명 포함)이 참석했다.

일행은 산행을 마치고 시부아초밥집에서 만찬을 한 후 노래방에서 신놀이를 했다. 이날 협찬한 동문은 다음과 같다.

▷동기회 10만원 ▷김정교(동기회장)=20만원 ▷김미옥=10만원 ▷박영수=10만원 ▷박용일=30만원 ▷송승방(산악회장)=10만원 ▷정우광=10만원.

“사람들이 버린 ‘희망의 이삭’ 다시 주워 새롭게 심읍시다”

희망의 불길이 타오르는 새해를 기원하며

새해에는
 모든 사람들이 계층 간 갈등, 세대 간 갈등의
 대립과 분열을 극복하고
 이해와 협력을 통해 희망의 꽃피를 보여주게 하여
 우리 모두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게 해주소서,
 하느님이 보우(保佑)하는 이 나라
 이제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어두운 과거의 터널을 하루빨리 벗어나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소서.

새해에는
 용서와 사랑, 화해와 타협의 불길이 랍성처럼 번져나가
 얼어붙은 동토(凍土)에 온기를 불어넣어
 우리 모두를 근심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경제(經濟) 불황(不況)이라는 빙판(氷板)과 폭설(暴雪)을
 모두 녹여버리게 하소서.

새해에는
 위정자(爲政者)들이 국민의 아픔을 함께 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를 하여
 얼어붙은 이 나라에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게 해주소서,
 흑과 백의 논리가 버려지고 자연과 내가 하나이듯 그러한
 합일(合一)의 청신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새 나라가 되게 해주소서.

새해에는
 동해에 솟아오르는 해가 어두움의 짙을 태우듯
 모든 절망과 어두움이 다 타버려지게 하소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단일민족 역사의 힘이
 모든 부정적인 현상들을 동해 앞바다에 던져버리도록 해주소서,
 사람들이 버리고 말았던 희망이라는 이삭을 다시 주워
 이 땅에 다시 심을 수 있게 해주소서.



김경수



김경수 동문(30화)은 의지지원입니다. 김경수내과의 원장인 김 동문(의 학박사·내과전문의)은 <현대사>로 등단했으며, 최근 <시의 사랑> 편집인입니다. 시집으로는 '희망의 이삭' '눈부시다' '다른 시각에서 보다', '복숭아 다 소중한 사랑' 등이 있습니다.

별장같은 휴식과 아이클래스만의 품격이 있는 곳-



서대신동 2가 지하철 동대신동역 2번 출구 옆

옛 경남학원 자리 **경남아파트** GYEONGNAM APART

지진대비 내진설계

B동

34평형[잔여세대] 특별분양!

단단한 기초골격! 별도의 인테리어 시공이 필요없습니다!

김근준(1회) **즉시입주! 저리용자!**

- 우수한 빌리로 이름난 경남빌라 A동의 저매물
- 동아대병원, 부산대학병원, 동아대, 경남고 등 의료·교육환경
- 지하철 역세권의 교통중심지 (지하철 동대신동역 옆 35m거리)
- 고급 마감재와 고품격의 인테리어
- 고급 수입자재 - 온돌마루(아오끼-일제), 벽지(방염, 불연-일제)
- 단단하고 튼튼한 기초골격공사 (지진대비 내진설계)

1층 주차장 1층 주차장

★ 우아하고 넓은 1층 주차장 ★

지하철 SUBWAY

대신동 경남아파트

2번출구 동대신역

분양문의 : 051) 253-5342, 241-3343 / 011-9500-8185